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가는 Value Creator

신용보증기금

글 **이재수** KFPA 교육홍보팀 차장

이번 호에서는 4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사옥을 방문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구혁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2개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방화구획, 소방시설 등에 대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시공한 건물로 2015년 6월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1976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1천억원에 불과하던 신용보증 잔액은 2014년말 현재 약 41조원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신용보증, 신용보험, SOC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창업지원, 기업경영지원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사옥 이전을 재도약의 전기(轉機)로

지난해 12월, 현재의 대구혁신도시 신사옥으로 본점을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중소기업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재도약의 전기(轉機)로 삼고 있다. 지난 40년간 쌓아온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결집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가치 중심의 금융지원 플랫폼을 확충하여 미래의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은 그간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 선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신 소방설비

신용보증기금 신사옥은 화재시 열기에 의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층의 비상계단(피난계단) 출입문 손잡이를 패닉바로 설치하여 신속한 대피를 보장하고 있으며, 직원이 활동하는 지역은 모두 청정소화가스(IG541)로 설비하여 소화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였고, 24시간 자동으로 설정하여 화재시 즉각 소화가스가 분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건물내 모든 소화전은 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식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였고, 발전기실, 전기실, 유류탱크실, 방송실, 조리실 등 중요시설에는 고가(高價)의 아날로그 감지기 설비로 온도, 농도를 항상 검지하여 비화재보(감지기오동작) 발생률을 낮추는 등 최신식 소방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소방훈련 및 안전 관리

직원, 외부인력(용역업체, 아르바이트생)을 구분하여 전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피시 혼잡방지를 위해 부서별 대피계단을 구분 지정(동, 서쪽 피난계단 구분 사용)하여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주단위로 화재 취약지역(식당주방, 매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위험물 저장소)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월단위로 전 소방시설 점검 및 수시 순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상황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조그만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지속 보강(감지기 및 소화가스 시설 추가 설치 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제반 안전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안전에 대해서는 사소한 하나도 방심해서는 안되며,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항상 인지하는 즉시 조치를 하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현장을 눈으로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사고예방"이라는 신념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태도에 신용보증기금의 안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변화지향, 건강기금, 고객감동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길 바라며 탐방을 마쳤다.

▲ 중앙감시실(방재실)전경

▲ 화재예방교육(소화기사용)

▲ 화재대피훈련

▲ 청정소화가스 설비

▲ 안전관리실 직원들, 왼쪽부터 이대환 과장, 신병주 실장, 임용순 팀장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우수상 수상작〉

선생님! 우리도 안전공부해요

글 **이규인** 대전

화재 안전map를 작성하여 우리 가정의 화재대피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찾아보도록 했다.

선생님! 선생님! 불났어요?

"애들아, 불이 났는데 옆 짝꿍이랑 장난만 치면 어떻게 해!"

일 년에 한번 있는 소방 훈련하는 날, 아이들은 불이 났다는 경보음을 듣자마자 신이 나서 아우성이다. 전교생이 각자 정해진 경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진지함보다는 잠시 잠깐 지루한 공부를 피해 일탈한다는 즐거움에 모두들 들떠 있었다. 매년 우리 학교에서는 일 년에 한번 화재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만 그 때마다 아이들은 안전수칙을 배운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은 채 조잘조잘 장난을 치며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2학년 담임을 맡아하던 해, 9살배기 아이들과 행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으로 장난치듯 소방훈련을 마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다녀온 사이 휴지통 옆에서 빨간 불꽃과 함께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아마도 아까 생일파티에 쓰고 남은 생일 초와 성냥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호기심에 불을 켜다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당황한 아이들과 나는 제법 사나운 불꽃에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허둥거렸고, 소화기를 찾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몰라 무용지물이었다. 소방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돗가로 가야하나 생각했지만 그 사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결국 교실에 있는 커다란 화분을 쓰러트려 흙으로 불이 난 곳을 덮어 간신히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다.

안전한 우리 교실과 선생님이 좋아요!

지난 교직생활을 생각해 보니 과학시간에 책상이 밀리면서 알코올램프가 떨어져 불이 난 적도 있고, 실과 요리실습 중 가스버너 옆에 있던 비닐봉지로 불이 번져 큰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으니 교실에는 크고 작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지내오며 소화기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니 여러모로 반성되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앞으로 이런 일로 당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아이들에게 안전생활을 위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집안 구석구석 위험한 곳은 없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숙제를 내고 점검결과를 안전일기에 적도록 했다. 전열 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 놓았는지, 한 개의 전기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연결하여 쓰고 있지는 않는지, 집안의 전선 중 껍질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곳은 없는지,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를 잠그고 난로나 가스레인지 주위에 종이나 비닐 등 불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둘째, 우리 가족 화재 안전 map를 작성하여 위급할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했다. 먼저 우리 집 도면을 그리고 벽과 창문, 문 등을 표시한 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불꽃으로 표시하고 소화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표시하게 한다.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안전map 전시회를 열어 다른 가정에서는 위급할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함께 알아보며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다.

셋째, 미술시간에 나만의 안전점검 스티커를 만들어 집 안 곳곳에 붙여두어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생활을 실천하도록 했다. 가령 뽀로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라벨지에 뽀로로를 그리고 말풍선에 「가스불 확인」이라 적어 쓱싹쓱싹 가위로 오려 가스레인지 옆에 붙여두고, 타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캐릭터를 그리고 말풍선에 「코드선 빼기」라고 적어 전열기 옆에 붙여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아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통해 좀 더 재미있게 안전생활을 실천하도록 했다.

넷째, 표어, 그림일기, O×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도록 행사를 진행해 나갔다. 「조심해라! 지금 당장! 후회한다! 좀 있으면!」, 「불이 나면 어떡하지? 안 나도록 조심조심!」 등 짧고 간략한 문구를 통해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학년의 경우 어려운 수기작성보다는 그림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안전생활 홍보물을 시청한 후 O×퀴즈, 골든벨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하고 우승자에게는 미니 소화기를 증정하는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또한 과학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미니 소화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페트병, 빨대, 식초, 초, 소다, 빨대를 준비하여 병뚜껑에 구멍을 낸다. 구멍을 낸 뚜껑에 빨대를 끼우고 글루건으로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병에 식초를 적당히 채우고, 화장지로 싼 소다를 페트병 안에 넣고 재빨리 뚜껑을 닫고 촛불에 가까이 가져간다. 입구 쪽 빨대를 손가락으로 막고 있다가 뚜껑을 완전히 닫고 나서 손가락을 떼면 촛불이 꺼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소방이」와 「안심이」와 함께 하는 안전한 우리교실!

「소방이」와 「안심이」는 우리 반 안전생활 캐릭터다. 빨간 티셔츠에 소방호수를 멋들어지게 목에 감고 있는 꼬마 소방관 개구쟁이 남장 아이 「소방이」와 꼼꼼한 성격에 집안 구석구석 안전을 챙기는 새침때기 여자 아이 「안심이」를 우리 반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천장 벽에 붙어 있는 선풍기 스위치나 형광등과 컴퓨터 스위치 옆에 붙어두고 등하교나 수업 이동 시에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꼭꼭 안전점검을 실천하도록 한다.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보니 안전생활이 아이들에게 중요하지만 진지하거나 지루한 안전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즐겁게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우리는 안전 어린이 코너를 추천한다.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안전 수칙을 동영상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어 좋고 소화기 사용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활용하기 좋다.

천여 명의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 운동장에 모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연기가 피어오를 곳을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을 바라보는 「구경형 소방훈련」보다는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소방안전 애니메이션 시청과 함께 안전수칙 O×퀴즈를 실시하고, 중학년(3-4학년)의 경우는 소화기를 직접 조작하여 작동법을 익히고, 고학년(5-6학년)의 경우 안전가이드북을 숙지한 후 골든벨을 통해 안전지식을 점검해 나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모두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소방교육」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얼마 전, 부모가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주방에서 불이 나 여섯 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안전에 약자인 셈이다. 요즘은 부모님이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 혼자 있는 일이 많으므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며, 좀 더 눈높이에 맞는 안전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을 찾아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익혀나가도록 다양한 체험을 실천해 나가는 안심 선생님이 되고픈 것도 나의 작은 소망이다.

날씨 변화에 대비하기

실내 난방 기기 안전 수칙

- 휴대용 난방 기기는 실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 취사용 기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커튼, 빨래와 같은 인화 물질은 기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실내에 난방 기기를 켜 놓은 채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멀티 이동형 콘센트에 너무 많은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악천후 시의 안전 수칙

- 폭풍우가 오기 전에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 베란다 화분, 정원의 쓰레기통 등은 바람에 날려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심각한 폭풍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홍수 피해가 잦은 곳에서는 사전에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천둥 · 번개 시의 안전 수칙

- 감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금속이나 전기 제품, 전화기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즉시 실내로 대피하고, 땅바닥에 엎드리거나 나무 밑으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단락된 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 시의 안전 수칙

- 하천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는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물이 고인 곳은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흐르는 물이 무릎 위까지 닿는 경우에도 절대 하천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폭염 시의 안전 수칙

- 12시부터 17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 야외 활동, 작업을 자제합니다.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스레인지 등은 사용을 자제합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생수나 주스를 마셔 수분을 유지합니다.
- 커튼이나 천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샐러드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면 소재 옷을 입습니다.
- 창문이 닫힌 차 안에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글/ 사진 **채지형**

숨겨진 향수를 찾아 떠나는
일본 가나자와 여행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가나자와는 일본의 전통공예가 유명하다

에도시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히가시차야

히가시차야에서 맛보는 말차

게이샤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히가시차야

작은 도시에서 한적하게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 일본 가나자와다. 가나자와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도시다. 인구 50만이 채 되지 않는 아담한 도시지만, 매년 800만명이 넘는 여행자가 가나자와를 찾는다.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과 같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원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문화시설들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혼슈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인 가나자와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상공업 중심지였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지 않아 역사적인 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금박이나 자수, 세공 등 일본의 우아한 전통 공예도 유명하다. 또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 창조도시 네트워크는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라프트&포크 아트와 디자인, 영화, 식문학,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 등 7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중 가나자와는 크라프트&포트 아트 분야에 등록되어있다.

에도시대를 품은 히가시차야 둘러보기

전통에 관심이 있다면 '동쪽 찻집 거리'라는 뜻의 히가시차야를 먼저 둘러보자. 히가시차야는 에도시대(1600~1867년) 풍류 일번지로 불렸던 거리로 일본의 게이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고즈넉한 인사동 거리를 떠올리면 될까. 히가시차야 거리를 걷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일본의 과거로 들어선 느낌이 든다.

과거에는 게이샤들의 춤과 술이 넘치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전통을 살린 찻집 골목으로 변신했다. 히가시차야 골목은 고풍스러운 목조 가옥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길 전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히가시차야 골목은 독특한 기념품과 과자 가게가 많아 골목은 길지 않지만 구경하며 걸으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히가시차야 골목에서 인기 있는 집 중 하나는 골목 가운데 위치한 '카이카로'. 5대째 이어 게이샤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장과 함께 게이샤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직

접 부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말차와 화과자도 즐길 수 있다. 밤에는 유흥가로 바뀌기 때문에 낮에 가야 한다.

히가시차야를 둘러봤다면, 가나자와에서 가장 유명한 겐로쿠엔에 갈 차례다. 겐로쿠엔은 자연미와 인공미가 어우러진 일본식 정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토의 가이라쿠엔, 오카야마의 고라쿠엔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겐로쿠엔은 1676년 5대 영주였던 마에다 쓰나노가 가나자와성 일부를 정비하면서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이후 13대 영주인 마에다 나리야스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완성했다.

높은 곳에 위치해 가나자와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햇살을 받은 이끼와 초록 잎들이 신비로움을 내뿜는 곳이다. 겐로쿠엔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지러웠던 마음도 편안해진다.

정원 안에는 산과 폭포, 섬과 다리, 숲까지 여러 형태의 자연이 갖춰져 있다. 정원 가운데 커다란 연못 안에는 불로불사의 신선이 산다는 섬도 있다. 자연을 그대로 축소하는 일본의 독특한 정원문화와 정신세계를 볼 수 있다.

겐로쿠엔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2대 영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대 영주인 나리나가가 오슈시라카의 영주 락옹에게 정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중국 송나라 시대 시인 이격비의 낙양명원기라는 문장을 이용, '광대함, 유수, 인력, 고색창연, 수로, 조망' 등 6가지를 갖추고 있는 정원이라고 하여 '겐로쿠엔(兼六園)'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전해진다.

독특한 작품이 가득, 21세기 미술관

겐로쿠엔과 히가시차야를 보고 가나자와가 전통만 고수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겐로쿠엔에서 가까운 21세기 미술관에 가면, 기발한 미술관과 작품들에 깜짝 놀라게 된다.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21세기 미술관은 독특한 컨셉트의 건축물로 2004년 문을 열자마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1세기 미술관은 이름처럼 미래를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모든 곳이 열려 있다. 누구나 언제든 쉽게 드나드는 오픈형으로 만들어졌다. 미술관 자체가 원형 구조로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구경하는 구조다.

아르헨티나 작가 레안드르 에를리치의 '수영장'은 21세기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물을 채운 수영장 바닥에 강화유리를 깔아서 수영장 아래와 위에서 수영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미술관 잔디 곳곳에 설치된 12개의 관도 각각의 소리를 이어 주는 신기한 작품이다.

미술은 특정 계층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독특한 작품을 볼 수 있는 21세기 미술관

독특한 작품을 볼 수 있는 21세기 미술관

쉽게 참여하고 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멋진 미술관이다.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가슴 설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미술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나자와는 행복한 도시다.

바다를 달리다, 치리하마 드라이브 웨이

이시카와현에는 자동차를 타고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는 곳이 있다. 치리하마 드라이브 웨이가 바로 그곳. 이마하마 IC부터 치리하마 IC까지 8km의 도로로,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모래사장이다. 왼쪽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오른쪽에는 모래가 잡힐 듯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 가면 낭만적인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래사장을 마음껏 자동차로 달릴 수 있다. 차를 타고 모래사장을 달리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이처럼 모래사장을 무거운 차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모래가 곱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파도가 심할 때나 물이 많이 들어올 때만 빼면, 언제든지 모래사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다. 치리하마에 가면 무조건 차를 렌트해야 하는 이유다.

모래사장은 전체 8km로 현재 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은 6km 정도다. 일본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여행지라 그런지, 해변 옆에는 알록달록한 포장마차도 늘어서 있다. 시원한 바다를 끼고 달리는 모래사장 드라이브 후에 마시는 맥주 한잔.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는 치리하마

여행정보

*** 가는 길 :**

가나자와로 갈 때는 고마쓰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고마쓰 공항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고 대한항공이 월 · 수 · 금 · 일요일에 1편씩 운항하고 있다. 고마쓰 공항에서 가나자와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린다.

도쿄에서 갈 경우에는 신칸센을 이용하면 된다. 2015년 3월부터 신칸센이 운행을 시작했다. 도쿄역까지 가나자와역까지 2시간 28분 소요.

*** 가나자와 관련 정보**

– 가나자와시 홈페이지 : www.kanazawa-tourism.com/korean/main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는 치리하마

여름철에 더욱 기승부리는 '무좀' 예방법

글 **손유나** 연세 손유나 클리닉 원장

한낮 온도가 섭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초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바야흐로 고온다습한 계절, 여름이다. 이런 여름철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무좀이다.

여름철 피부과를 방문한 사람들 중 70%이상이 발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고, 그 중에서도 무좀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유독 '무좀'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피부백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국민 6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으로, 곰팡이균(백선균)이 피부 각질층에 침입해 기생함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피부질환이다. 특히 이 곰팡이균은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땀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무좀균(곰팡이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재발해 어느 계절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은 대개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 작은 수포가 산재해 나타나는 수포형, 딱딱하게 두꺼워지는 각화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이 지간형으로 발가락 사이 4~5번째 발가락 사이나 3~4번째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증상은 보통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무르고 습기로 인해 허옇게 되거나 갈라지면서 각질이 벗겨지는데,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불쾌한 발 냄새나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좀은 발병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를 통해 균이 들어가 급성 염증이 발병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발열과 함께 보행도 힘들어지고 사타구니 부위 임파선이 붓거나 몸속 혈관으로 균이 침범해 다리 전체가 붓는 정맥염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무좀이 생겼을 때에는 하루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선 항상 발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사상균, 즉 곰팡이는 생존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번식할 조건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항상 발을 꼼꼼하게 씻도록 하고, 발은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 발가락 사이사이를 말리고 건조함을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양말이나 신발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평소 발에 땀이 많다면 합성섬유 소재의 양말보단 면소재의 양말을 신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바닥이 말랑말랑한 젤리슈즈나 레인부츠 또한 무좀 발생률을 높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신는 실내화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목욕탕과 헬스클럽, 찜질방 등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도 무좀균은 감염성질환이기 때문에 자꾸 손으로 만지면 손이나 다른 부위에도 전염될 수 있어, 손 등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좀에 걸렸다 싶으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올바른 치료를 꼭 받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무좀은 완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무좀을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꾸준히 연고를 발라야 하는 등 치료법이 번거롭다보니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재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무좀이 발병했다면 완치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완치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무좀 예방수칙

1. 발을 매일 씻는다.
2. 씻은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린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린다.
3. 여름철에는 꼭 끼는 신발을 피하도록 한다. 샌들을 신는게 가장 좋다.
4. 양말은 반드시 면연말로 신고 하루 한번이상 갈아 신는다.
5. 가급적이면 집안에서만이라도 맨발로 지내도록 한다.

KFPA, 창립 42주년 맞아

KFPA는 올해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5월 15일(금)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에서 전 임 ·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2주년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KFPA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시험 · 연구 · 인증 · 교육사업과 방재컨설팅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특수건물 안전점검 및 손해보험사 언더라이팅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울러 2014년 5월'고객중심경영'을 선포한 이래 지난 1년간 모든 업무 분야에서 고객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KFPA는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조직문화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KFPA는 종합 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핵심기술 확보 및 직원들의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창립 42주년 기념 학술논문집을 발간했다. 학술논문집에는 최종 선정된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앞으로도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논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창립 42주년 학술논문집 목차〉

구분	제 목
1	화재시뮬레이션(FDS)을 이용한 도장부스 화재에 대한 미분무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연구
2	전기실 기밀도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소화농도유지시간 및 과압 분석에 관한 연구
3	사업장 간의 풍수재 위험 차등화 및 활용 방안 연구
4	백열전구 복사열에 의한 목재의 발화 가능성 예측 점열원 및 적분모델을 이용한 화재역학적 접근 –
5	분체도장공정의 위험과 대책
6	화재통계와 안전점검 결과를 이용한 화재위험 동향 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주거시설(아파트) 중심 –
7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방제품 인증산업 국제적 동향의 이해
8	특수재난현장 정찰로봇의 현장운용성 평가 연구
9	가속수명시험을 이용한 연기감지기 신뢰성 분석
10	음향신호를 이용한 피난 상황 및 경로 안내
11	화재 시 가연성 침대 매트리스의 열확산 알고리즘 추정을 통한 위험경감 방안 고찰
12	피난실험을 통한 피난 모델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3	내화천장구조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전국 236개 전통시장 일제 화재안전진단 실시

KFPA는 전통시장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 · 제거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 인천 · 대전 · 경기 · 충남 · 충북 · 강원 지역 236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위험지역으로 화재보험 가입율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은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이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평균 피해액인 779만원(최근 5년간 전국 연평균 화재건수 42,411건, 재산피해 3,305억원)과 비교해 볼 때 1.7배나 더 많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는 최근 5년간 평균 66.8건 발생, 재산피해는 약 9억원에 달하며, 2005년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구서문시장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어 화재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KFPA는 236개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와 공용 시설물에 대해 소방 · 가스 ·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등 화재안전진단을 일제히 실시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붕괴위험 점검매뉴얼」발간

KFPA는 재난예방 및 방재시설의 조사 · 연구업무의 일환으로 건축물 붕괴위험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록한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을 4월 초 발간하고 손해보험사 등에 배포하였다.

전국 중대형 건물(특수건물)의 안전점검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KFPA는 안전점검 범위를 기존의 화재예방 위주에서 올해부터 붕괴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방재활동업무를 강화 ·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업

NEWS

무의 하나로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은 점검자가 현장 점검 시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건축물의 구조, 구조설계 도서, 점검사항, 사고사례 등의 내용을 210쪽의 분량에 수록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청와대 관계자 소방시설점검 실무교육 실시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청와대 소방대 · 경호실 · 비서실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소방시설점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특정지역 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실무능력 및 예방행정의 현장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소방시설에 대한 구조이해와 작동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최신 소방시설에 대한 구조이해와 조작기술 습득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예방업무 실무 ▲수계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실무 및 실습 ▲경보설비 점검실무 및 실습 등이다.

KFPA 관계자는 "방재시험연구원은 1989년부터 약 26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재기술 실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청와대 관계자 교육 역시 방재시험연구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교육 대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편, 방재시험연구원이 지난 2007년 8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19761호)에 의한 소방방재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소방공무원이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연간 의무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10곳 추가 선정

KFPA는 6월 초 ▲나라키움대전센터(대전 서구)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 동구) ▲한진중공업R&D센터(부산 중구) ▲한화생명 중동사옥(경기 부천시) ▲현대캐피탈빌딩(서울 영등포구) ▲현대해상 부산사옥(부산 동구) ▲㈜호텔신라(서울 중구) ▲(주)이마트 세종점(세종시) ▲(주)이마트 춘천점(강원 춘천시) ▲(주)신세계마산점(경남 창원시) 등 10개 업체를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추가 선정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KFPA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시설의 설치상태, 유지관리, 경영진의 의식상태 및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KFPA 각 지부별로 추천한 건물에 대해, 관리시스템,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전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 2회 주기로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업체를 포함하여 전국 총 154개의 사업장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은 1~2년마다 재심사를 거친 후 불합격인 경우 인정이 취소된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에게는 KFPA가 실시하는 방재기술교육 무료 참가 기회 제공 및 KFPA 발간도서 할인,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인사발령

〈승진〉

■ 이사

▲기획감사실장 김원철(金元鐵)　▲교육홍보팀장 김인태(金仁泰)

〈이동〉

(팀장)

▲고객서비스팀장 장우빈(張禹斌)　▲특수진단팀장 안갑철(安甲喆)

(지부장)

▲중앙지부장 장영환(張榮桓)　▲경기강원지부장 김광섭(金昿燮)

▲부산경남지부장 백광현(白光鉉)　▲인천지부장 배철홍(裵哲鴻)

▲대전충청지부장 백운용(白雲龍)　▲광주호남지부장 이주상(李周相)

(부지부장)

▲중앙지부 부지부장 김영하(金榮河)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이종섭(李鐘涉)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이진하(李進河)

▲대전충청지부 부지부장 홍영표(洪永杓)

(이상 2015년 5월 1일자)

Q.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지침 내용에는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 중 '점검구 1㎡ 이하, 갑종방화문, 4곳 이상 볼트 조임'의 3가지 조건에 전부 해당 되어야만 소방시설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관련부처(구. 소방방재청)의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1. 4. 20 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 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2011년 4월 21일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피트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검구 요건은

1) 1㎡ 이하 크기로 두께 1.5㎜ 이상의 철판에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2) 1㎡ 이하 크기로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상기 2가지 조건으로 해석됩니다.(단, 세부적인 시공방법 및 갑종방화문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중, 외벽을 60mm 베이스판넬로 시공하였을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베이스판넬로 외벽 시공시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으로 인정하게 되는지 아니면 비내력벽으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이스판넬로 외벽을 시공하고 드라이비트를 부착할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 내화구조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인정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베이스판넬, 드라이비트 등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내화구조가 아니므로 내화구조인정을 받으셔야 하며, 내화구조 인정은 해당 구조의 제조자나 시공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내화구조인정을 신청한 후 품질검사 및 해당 구조에 대한 시험(내화시험+부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내화구조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의 제품을 조합하신 경우 내화구조 인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인정서를 취득한 구조만 내화구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Q. 지하2층 지상22층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하여 지상층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지하층은 없습니다. 지하층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실, 제연휀룸, 통신실, 전기실, 피트 등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도면상에 실명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없고 문이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연휀룸 등 모든 공간에 스프링클러가 제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서 11층 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6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물분등소화설비(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

1) 물 분무 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에서 아래와 같이 헤드설치면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 ·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 목욕실 · 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 · 화장실 ·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 통신기기실 · 전자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 · 변전실 · 변압기 ·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단, 상기 전기실 등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기실.통신기실 및 전산실은 바닥면적 300㎡은 대상임)인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중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장소 중 제연휀룸과 용도가 설정되지 않은 구획되지 않은 실의 경우에는 헤드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명확한 설치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할 소방관서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하나의 방화셔터에 2개의 비상문내장형(일체형도어) 또는 그 이상의 비상문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제3항에서는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화셔터에 2개 이상의 비상문(일체형 출입문)을 설치하여 시험을 통과한 성적서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1개로 인정을 받은 일체형방화셔터에 추가로 출입문을 설치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화재 및 화재보험 통계

1. 전국화재통계

(출처)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 시 · 도별 화재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5월말)
서 울	5,526	5,724	5,646	5,815	2,560
부 산	2,485	2,315	2,323	2,026	940
대 구	1,990	1,757	1,538	1,767	854
인 천	1,851	1,608	1,575	1,818	897
광 주	1,225	1,106	1,110	1,010	484
대 전	1,352	1,387	1,265	1,291	617
울 산	1,285	1,080	1,192	890	426
세 종	–	65	194	223	131
경 기	10,019	10,159	9,049	9,675	5,215
강 원	2,399	2,403	2,097	2,182	1,310
충 북	1,376	1,377	1,345	1,316	698
충 남	3,089	3,221	2,657	2,838	1,608
전 북	1,562	1,537	1,569	1,652	1,029
전 남	2,053	2,425	2,480	2,620	1,378
경 북	3,231	2,843	2,737	2,803	1,585
경 남	3,641	3,551	3,416	3,622	1,757
제 주	791	691	739	587	275
합 계	**43,875**	**43,249**	**40,932**	**42,135**	**21,764**

•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5월말)
전기적요인	10,663	10,489	10,103	9,445	3,996
기계적요인	4,072	4,261	4,058	4,065	1,961
화학적요인	299	276	322	360	162
가스 누출	217	170	181	168	69
교통 사고	532	576	567	511	225
부 주 의	20,238	20,246	19,012	21,489	12,537
기타 실화	861	1,037	843	866	426
자연적요인	386	230	397	243	58
방 화	488	418	497	478	212
방화 의심	1,762	1,287	1,071	948	401
미 상	4,357	4,259	3,881	3,562	1,717
계	**43,875**	**43,249**	**40,932**	**42,135**	**21,764**

• 발화열원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5월말)
작동기기	15,528	15,502	15,166	14,804	6,598
담배, 라이터불	10,201	9,967	8,723	9,752	5,238
마찰, 전도, 복사열	2,915	3,437	3,577	3,593	1,722
불꽃, 불티	7,535	7,250	6,862	7,799	5,326
폭발물, 폭죽	83	81	45	57	30
화학적 발화열	235	217	250	287	117
자연적 발화열	372	215	355	182	49
기 타	1,418	1,435	1,303	1,434	651
미 상	5,588	5,145	4,651	4,227	2,033
계	**43,875**	**43,249**	**40,932**	**42,135**	**21,764**

• 연도별 화재발생 및 인명 · 재산피해 현황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 연도	건수	사망/부상	계	피해액
2011	43,875	263/1,599	1,862	256,548
2012	43,249	267/1,956	2,223	289,523
2013	40,932	307/1,877	2,184	434,423
2014	42,135	325/1,856	2,181	405,279
2015(5월말)	21,764	140/941	1,081	179,860

•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5월말)
주 거	10,645	10,691	10,596	10,861	5,257
비주거	16,388	15,966	15,066	14,961	6,853
차량	5,591	5,506	5,250	4,827	2,167
위험물, 가스제조소	37	28	24	22	8
철도, 선박, 항공기 등	79	120	89	107	44
임 야	3,003	2,691	2,334	2,921	2,344
기 타	8,132	8,247	7,573	8,436	5,091
합 계	**43,875**	**43,249**	**40,932**	**42,135**	**21,764**

• 연소확대 사유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5월말)
가연성물질의 급격한연소	9,440	8,976	7,610	7,950	4,072
현장진입지연(불법주차)	150	167	107	118	68
현장도착지연(교통혼잡)	190	174	134	132	71
원거리 소방서	1,030	1,044	813	769	383
방화구획 기능 불충분	299	325	213	266	102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협소	602	595	465	483	251
목조 건물의 밀집 등	40	40	33	23	13
기상(건조,강풍등)	1,685	1,331	1,096	1,215	1,224
기 타	1,179	1,307	1,086	1,295	601
미 상	53	42	60	48	29
화재인지 · 신고 지연	5,840	5,673	4,803	5,170	2,681
덕트 · 샤프트의 연통역할	88	70	78	86	31
계	20,596	19,744	16,498	17,555	9,526

※ 전체 화재 중 연소 확대된 화재에 한함.

2. 최근 5년간 화재보험 경과손해율[1)]

(출처) 금융감독원

구분 / 연도별	경과보험료[2)](10억원)	발생손해액(10억원)	경과손해율(%)
2010. 3	202.8	64.9	32.00
2011. 3	165.5	64.2	38.79
2012. 3	220.2	129.9	59.02
2013. 3	273.9	162.2	59.22
2013. 12	204.5	69.3	33.87
2014. 12	267.9	148.3	55.37
2015. 1	20.0	22.8	114.13

주 1)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2) 경과보험료 = 원수경과보험료+수재경과보험료-출재경과보험료

특수건물 화재통계

• 연도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및 인명 · 재산피해 현황

구 분	특수건물 대상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사망/부상	계	
2012	31,667	4/171	175	16,207
2013	33,612	14/193	207	31,170
2014	35,487	42/332	374	66,176
2015(4월 말)	36,211	2/31	33	11,403

※ 특수건물 대상 건수에 국유 및 방위산업체 건물은 제외함.

• 시 · 도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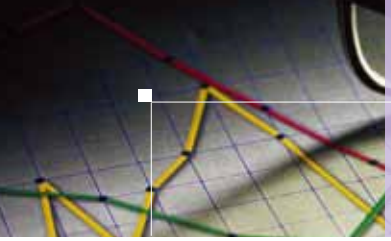
구분	2012 건수	2013 건수	2014 건수	2015(4월 말) 건수
강원	17	28	28	9
경기	423	565	649	197
경남	101	116	134	50
경북	83	73	79	33
광주	78	56	91	20
대구	88	95	95	33
대전	36	54	62	31
부산	124	134	114	50
서울	241	317	368	132
세종	–	6	9	0
울산	48	42	50	11
인천	109	142	156	49
전남	30	36	45	18
전북	47	43	58	24
제주	5	6	3	3
충남	51	82	79	39
충북	51	63	49	22
총합계	1,532	1,858	2,069	721

• 발화원인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현황

구분	2012 건수	2013 건수	2014 건수	2015(4월 말) 건수
가스누출(폭발)	7	10	8	3
기계적 요인	265	259	302	138
미상	171	215	209	69
방화	11	26	29	8
방화의심	30	36	43	8
부주의	588	695	814	291
자연적인 요인	5	3	5	1
전기적 요인	373	528	548	176
화학적 요인	23	38	45	15
기타	59	48	66	12
총합계	**1,532**	**1,858**	**2,069**	**721**

• 발화열원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현황

구분	2012 건수	2013 건수	2014 건수	2015(4월 말) 건수
담뱃불, 라이터불	299	346	415	140
마찰,전도, 복사	145	178	208	68
미상(발화원인)	193	237	245	72
불꽃, 불티	154	167	158	73
자연적 발화열	3	2	3	2
작동기기	658	832	925	330
화학적 발화열	20	28	30	13
기타(발화원인)	60	68	85	23
총합계	**1,532**	**1,858**	**2,069**	**721**



특수건물 화재통계

• 발화지점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현황

구분	2012 건수	2013 건수	2014 건수	2015(4월 말) 건수
공정시설	126	148	167	52
구조	222	254	290	92
기능	191	221	244	88
기타	124	168	215	80
미상	13	14	19	5
생활공간	464	649	688	250
설비,저장	317	312	334	120
출구	75	92	112	34
총합계	**1,532**	**1,858**	**2,069**	**721**

주)특수건물이란?
–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 및 공유건물
–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일반음식점 · 다중이용 시설 · 영화상영관 · 목욕장업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 · 대규모점포,
–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 · 병원 · 호텔 · 콘도 · 공연장 · 방송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 학교 · 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옥내사격장 등을 말하며, 특수건물 대상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업종별 특수건물 화재 및 피해현황

구분		국유건물	공유건물	학원	병원	숙박시설	공연	방송시설	판매시설
2012	화재건수(건)	10	1	3	39	25	–	3	76
	사망/부상(명)	0/0	0/0	0/0	0/3	0/1	0/0	0/0	0/0
	재산피해(천원)	8,258	93	5,533	35,497	97,435	–	8,171	235,856
2013	화재건수(건)	18	6	4	32	25	2	1	82
	사망/부상(명)	0/3	0/0	0/0	0/1	1/3	0/0	0/0	0/9
	재산피해(천원)	202,402	100,343	1,060	63,718	187,571	2,081	256	402,329
2014	화재건수(건)	23	9	9	44	31	–	2	88
	사망/부상(명)	0/3	0/0	0/0	0/1	1/3	0/0	0/0	0/9
	재산피해(천원)	121,334	16,425	20,327	349,435	179,762	–	2,314	2,755,432
2015 (4월 말)	화재건수(건)	6	1	4	15	21	–	1	33
	사망/부상(명)	0/0	0/0	0/0	0/0	0/0	0/0	0/0	0/1
	재산피해(천원)	7,111	91	5,264	15,548	51,409	–	137	148,254

특수건물 화재통계

• 최초 착화물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현황

구분	2012 건수	2013 건수	2014 건수	2015(4월 말) 건수
가구	18	27	21	12
가연성가스	14	20	19	6
간판, 차양막등	11	7	6	2
미상	130	158	167	49
식품	109	175	191	63
쓰레기류	177	199	225	77
위험물 등	65	57	80	20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2	2	2	–
전기,전자	349	453	492	161
종이,목재, 건초등	189	218	266	104
침구,직물류	97	112	131	63
합성수지	204	258	280	95
기타	167	172	189	69
총합계	**1,532**	**1,858**	**2,069**	**721**

• 업종별 특수건물 화재 및 피해현황(계속)

다중이용업소	학교	아파트	공장	목욕	영화	철도	사격	11층 이상	총합계
49	19	550	629	6	5	2	1	114	1,532
0/0	0/0	2/100	2/60	0/0	0/0	0/0	0/0	0/7	4/171
167,013	503,423	1,759,987	13,189,373	5,156	456	7,898	88	182,558	16,206,795
70	14	740	706	29	2	3	0	124	1,858
0/1	0/4	6/104	7/49	0/17	0/0	0/0	0/0	0/2	14/193
505,566	104,295	3,439,045	25,779,751	72,222	866	17,963	0	290,864	31,170,332
72	23	840	741	42	7	3	–	135	2,069
0/1	0/4	6/104	7/49	0/17	0/0	0/0	0/0	0/2	14/193
505,229	129,642	3,373,694	57,184,276	174,982	9,036	2,565	–	1,351,195	66,175,648
23	9	274	263	12	2	–	–	57	180
0/0	0/0	2/24	0/4	0/0	0/0	0/0	0/0	0/2	2/31
65,284	4,445	1,117,991	9,896,229	5,034	2,773	–	–	83,283	11,402,853

※ 2011년부터 특수건물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목욕장, 상영관, 철도역사 등이 추가됨에 따라 공유건물에 대한 2011년 이전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으며, 다중이용업소 중 2011년 이전 자료는 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에 국한된 자료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방재시험연구원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방화재료, 화재시험, 내화시험, 난연시험, 음향(차음), 열관류 등의 시험연구장비와 29년 간 축적된 시험연구능력을 갖춘 화재안전 시험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문의 : 031-887-6642)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참여기업 지원대상이 됩니다.

정부지원내용 및 한도

방재시험연구원의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천만원)	40% 이상 (현금)

참여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5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신청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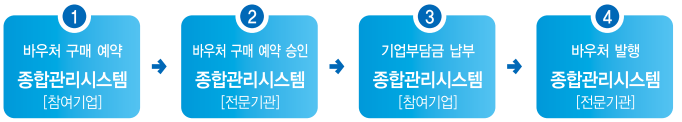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참여기업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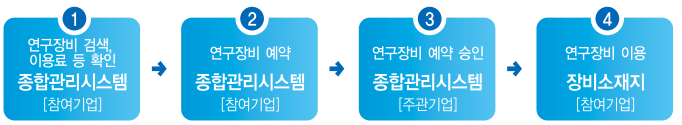
▸ 전문기관(한국산학연협회)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신청기업 자격 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
전문기관은 해당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최종 승인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사업절차〉

〈바우처 구매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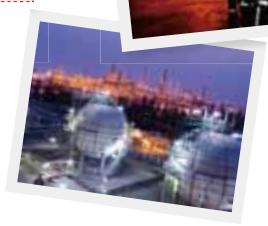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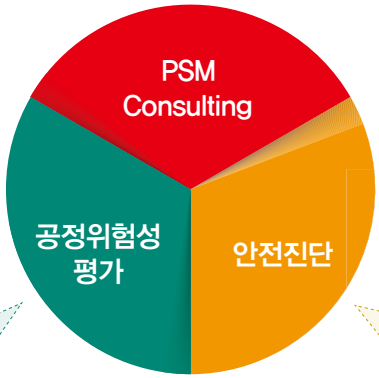
〈연구장비 이용 절차〉



PSM컨설팅 안내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 Consulting
자체감사(Audit)/변경관리(MOC)/교육훈련(Training)
PSM 평가등급 및 이행수준 향상 Consulting





- **운전과 위험분석**
  HAZOP(Hazard & Operability Study)
- **방호계층분석**
  LOPA(Layers of Protection Analysis)
- **정량적 위험성평가**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화공안전분야
화학설비 및 공정안전진단

전기안전분야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작성

기계안전분야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위험작업 안전진단

소방방재분야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방재시스템 전반

구조안전분야
풍수재 영향검토 및 건축 구조안전진단

컨설팅 절차

건설팅요청 담당자 방문 → 계약체결 자료검토 → PSM 보고서 작성 / 제출 → PSM 보고서 심사 / 보완 → PSM 보고서 확인 / 보완 → 컨설팅 종료 A/S

주요실적

년도	수행업체
2014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송원산업 울산/매암/수원공장, 두산퓨얼셀파워 삼성SDI 의왕사업장, 농심 안양/포승공장, 만도 Brake 사업본부 등
2013	금호타이어 유한공사/남경/장춘/천진공장, 발레오진장시스템코리아 등
2012	현대모비스 울산/경인/진천/김천/창원공장, 도레이첨단소재 구미공장 등
2011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금호폴리켐 여수공장, 웅진케미칼 구미공장 등
2010	한화 구미/보은/아산/여수/대전공장, 넥솔론 등
2009	삼성정밀화학, 제일모직, 만도, 금호피앤비, 현대삼호중공업 등

기술자격 보유현황

공학박사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기사	기타
8명	14명	8명	133명	ARM 6명 CFEI 56명

※ **기술사** : 소방기술사(한국/미국), 화공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 **ARM** : 미국공인위험관리사, **CFEI** : 미국공인화재폭발조사관

게시판

전문지식과 체계적인 실무능력의 습득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화재안전 및 소방의 글로벌리더를 양성합니다.

2015년도 교육일정

월	정기	일자	교육일수	과 정 명	교육비
7월	정기19차	1~3	3	위험물 및 환경안전관리	480,000
	정기20차	6~8	3	PSM기술실무	480,000
	정기21차	8~10	3	화재방호설비 실무(Ⅰ)	480,000
	정기22차	14~17	4	NFPA코드해설	600,000
8월	정기23차	24~28	5	미국화재폭발조사관자격	790,000
9월	정기24차	2~4	3	화재방호설비 실무(Ⅰ)	480,000
	정기25차	9~11	3	화재방호설비 입문	430,000
	정기26차	16~18	3	PSM자체감사 및 이행평가	480,000
	정기27차	21~23	3	화재방호설비 전문	480,000
10월	정기28차	5~7	3	화재피난시뮬레이션	490,000
	정기29차	13~16	4	화재방호설비 실무(Ⅱ)	600,000
	정기30차	19~21	3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작성실무	480,000
	정기31차	21~23	3	PSM기술실무	480,000
	정기32차	28~30	3	화재폭발감식	480,000
11월	정기33차	4~6	3	화재방호설비 실무(Ⅰ)	480,000
	정기34차	11~13	3	화재방호설비 입문	430,000
	정기35차	17~20	4	화재조사가이드	600,000
	정기36차	25~27	3	화재방호설비 전문	480,000
12월	정기37차	2ㅍ4	3	화재방호설비 실무(Ⅰ)	480,000

※ 주의사항

1) 교육장소는 방재시험연구원(리플렛뒷면 약도참조)이며, 안내시간은 09:10임.
   [화재방호설비실무(Ⅱ)과정은 09:40임]
2) 교육비에는 숙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3)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지원금액은 교육비의 약 13~30%이며,
   사업장규모와 해당차수의 교육인원에 따라 달라짐.
4) 교육비 할인: 국내손해보험사직원 50%, 공무원 20%, 위험관리정보 특별회원 10% 할인적용.
   (단, 정기 모집과정에 한하며, 연회비의 50% 범위내임).
5)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KFPA 사원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www.meritzfire.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전화 : 1566-7711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전화 : 1566-8000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m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전화 : 1588-3344

MG손해보험
www.greenfire.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전화 : 1588-5959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www.insurance.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 1가)
전화 : 1688-1688

SAMSUNG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 1가)
전화 : 1588-5114

현대해상
www.h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전화 : 1588-5656

LIG 손해보험
www.lig.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
전화 : 1544-0114

동부화재
www.idongbu.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전화 : 1588-0100

NH농협손해보험
www.nhfire.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미근동 21-1)
전화 : 1644-9000

KFPA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3년도에 설립된 이래, 화재, 폭발, 붕괴,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중대형 건물의 화재안전점검을 비롯하여 화재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전문 방재기관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하면 화재로부터 행복해집니다.